

일본의 성 니콜라스

알렉산드르(밀레안트) 주교

목차:

생애	2
소명	5
하코다테.....	8
초기의 성과.....	12

러시아로부터의 도움	18
성경 및 기타 필수 서적의 번역	20
전쟁	28
생애 말년과 서거	31
성 니콜라이 대성당	37
니콜라이 야포스키의 말씀과 가르침	41
마카리우스(네브스키) 대주교님께 보낸 편지에서	46
결론	51

생애

사도들과 동등한 니콜라이(카사트킨)는 일본 교회의 창설자이자 초대 수장으로, 20세기 러시아의 뛰어난 선교사입니다. 1912년에 선종한 그는 사망 60년 후인 1970년 3월 31일에 성인으로 시성되었습니다.

이 헌신적인 선교사의 온 생애와 모든 힘은 ‘떠오르는 태양의 나라’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데 바쳐졌으며, 그의 사도들과 동등한 공로를 세운 수고는 풍성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나

가나와 미츠오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그는 후손들에게 대성당 1개, 성당 8개, 교회 175개, 본당 276개를 남겼으며, 주교 1명, 사제 34명, 부제 8명, 설교자 115명을 양성했습니다. 정교회 신자의 총 수는 34,110명에 달했습니다...”

일본을 방문한 프로토이레이 이. 보스토르고프는 다음과 같이 썼다. “일본에서는 천황 다음으로 그토록 큰 명성을 누린 사람은 없었다. 일본 수도에서는 러시아 정교회 선교부가 어디에 있는지 물어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니콜라이’라는 한 마디만 말하면, 말 그대로 모든 인력거꾼이 즉시 선교부 손님을 어디로 데려가야 할지 알았습니다. 정교회 성당도 ‘니콜라이’라고 불렀고, 선교부 소재지도 ‘니콜라이’였으며, 심지어 정교회 그 자체도 ‘니콜라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러시아 사제의 복장을 하고 나라를 여행할 때면,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다정한 시선을 마주쳤고, 우리를 향한 인사와 대화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낯선 언어의 단어와 표현들 사이에서 단 하나, 친숙하고 소중한 “니콜라이”라는 말을 귀로 포착하곤 했다...”

1성인을 가까이서 잘 알았던 저명한 동양학자 D. M. 포즈드네예프는 이렇게 회상한다. “온화함과 대조적으로, 그는 어떤 장애물도 모르는 강철 같은 인물이었으며, 실용적인 지성을 지닌 행정가로, 어떤 곤란한 상황에서도 해결책을 찾아내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친절함과 더불어, 그는 엄격한 조치로

훈육하거나, 어떤 이유로든 처벌하거나 제지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람들에게는 냉정하고, 단호하며, 날카로울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 사교적인 면과 더불어, 그에게는 오랜 경험과 쓰라린 시련을 통해 얻은 매우 큰 절제심이 있었으며, 그의 신뢰와 솔직함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 유쾌한 대화 상대에게서 엿보이는 일종의 어린아이 같은 순진함과 더불어, 그에게는 위대한 정치가의 넓은 이상과 조국에 대한 끝없는 사랑, 조국의 고통에 함께 아파하고 그 고난을 함께 짊어지는 마음이 있었다... 광대하고 성스러운 이상, 강철 같은 의지, 그리고 끝없는 근면함 — 이것이 바로 니콜라이 대주교의 본질이다.”

성인의 전기 중 한 권을 쓴 A. 플라토노바의 말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그녀는 이렇게 썼다. “그에 대해 가능한 한 더 자세히 아는 것은 모든 러시아인의 의무이다. 대주교 니콜라이와 같은 사람들은 조국의 자부심이자 자랑이기 때문이다.”

그의 활동은 수많은 고통과 얽혀 있었다. 대주교 니콜라이는 양측으로부터 박해를 받았다. 일본인들은 그를 러시아의 정치 요원, 스파이, 선동가로 몰아, 일본 땅에 배신과 배신적이고 약탈적인 러시아에 대한 동정심을 퍼뜨린다고 비난했고, 러시아인들은 그를 일본에 러시아에 대해 알 필요가 없는 정보를 누설하는 인물로 여겼다... 이처럼 대주교의 활동은 무익할 뿐만 아니라 해롭다고 선언되었으며, 러시아 내 많은 이들은 그를 기이한 망상에 사로잡힌 괴짜로 여겼다. 대주교 니콜라이를 사명에서 지켜준 것은

평생 그를 이끈 두 가지 이념이었다. 첫째는 사도적 사역, 즉 이교도들 사이에서 정교회를 전파하는 위업에 대한 이념이었고; 둘째는 그의 사역이 정치와는 전혀 무관해야 한다는 뜨거운 신념이었다.” 또 다른 대목에서는 “그는 세속적인 목적을 위해가 아니라 더 높은 목적을 위해 그 모든 것을 간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의 마음속 깊이 스며들었다.”

소명

이반 드미트리예비치 카사트킨은 1836년 8월 1일 스몰렌스크 주 벨스키 구역의 베레자 마을에서 태어났다¹. 그의 아버지 드미트리 이바노비치 카사트킨은 마을 교회에서 집사로 섬겼다². 아이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예언자이자 선구자, 세례자 요한을 기리기 위해 요한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그의 어머니 크세니아 알렉세예브나는 그가 겨우 다섯 살이었을 때, 3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극심한 가난에도 불구하고, 소년은 처음에는 벨스키 신학교에, 그 후 스몰렌스크 신학교에 보내져 공부하게 되었다. S. 네다친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철도가 없던 시절, 이 청년은 신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위해 끔찍하고 지금도 여전히 벨스키의 빈민가를 지나 주 도인 스몰렌스크로 힘겹게 걸어가야 했다. 당시 모든 신학생이 말을 타고 학교에 다닌 것은 결코 아니었다. 그들 중 가장 가난한 많은 이들, 그

중에는 카사트킨 소년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들은 신학교에 도착하기 위해 150베르스트가 넘는 거리를 걸어서 가야만 했다.”

1856년, 그는 신학교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국비 지원으로 상트페테르부르크 신학 아카데미에 진학하여 1860년까지 그곳에서 공부했다.

모스크바 니키틴스카야 거리에 위치한 주님의 승천 성당 신도들은 이 마을이 있던 자리에 현재 트베리 주 올레닌스키 구 모스토프스키 농촌 지구 소속의 베레자 마을이 위치해 있음을 확인했다. 1836년, 베레자 마을은 벨스키 구(Velsky)의 베레조프스카야 볼로스티의 중심지였으며, 5가구(남성 7명, 여성 6명)가 거주하고 있었다. 마을에는 이제 단 한 채의 집도 남아 있지 않다. 마을 교회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파괴되었다.

성인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돌보며 매달 봉급의 일부를 아버지께 드렸다.

이 젊은이는 뛰어난 재능을 보였으며, 교수 활동을 준비하기 위해 아카데미에 남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일본으로 떠나기로 한 결정은 그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 놓았다.

그 결정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성 니콜라이 자신의 증언에 따르면, 그 전까지는 수도 생활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에 한 번도 떠오른 적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카데미 건물을 지나가던 이반

드미트리예비치는 ‘공용실’ 중 한 곳에서, 아카데미 과정을 수료한 학생 중 한 명을 하코다테에 있는 대사관 교회 주임 사제로 파견하겠다는 공고를 발견했다. 카사트킨의 동료 몇 명은 이미 사제 신분으로 일본에 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였다. 이 초청은 그 청년에게 특별한 인상을 주지 못했는데, 비록 한때 골로브닌의 일본에 대한 회고록이 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었음에도 말이다. 그는 태연하게 밤샘 예배에 참석했다. 그런데 예배 도중, 그는 갑자기 일본으로 가야겠다고 결심했다. 밤샘 예배를 마치고 돌아온 그는 깊은 감동에 휩싸여 아카데미 총장인 네크타리우스 주교를 찾아가, 일본으로 가고 싶다는 뜻을 밝혔으나, 기혼 사제가 아닌 수도사로서 가고 싶다고 말했다. 아카데미 총장은 청년의 열망에 깊은 공감을 표하며 그의 뜻을 대주교에게 보고했다. 순식간에 이반 드미트리예비치 카사트킨의 운명은 결정되었다.

1860년 6월 21일, 그 청년은 니콜라이라는 이름으로 수도 서원을 받았다. 6월 29일,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대주교 사도들의 날에 그는 사제 부제 서품을 받았고, 다음 날인 열두 사도 대축일(아카데미 교회 주보 축일)에는 사제 수도사 서품을 받았다. 그 청년을 수도자로 입회시킨 넥타리우스 주교는 그에게 니콜라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며 이렇게 말했다. “너는 수도원에서 수행자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너는 고향 그 자체를 떠나, 주님을 섬기기 위해 멀고 이교도들이 사는 땅으로 가야 한다. 수행자의 십자가와 함께 방랑자의 지팡이를 짚어야 하며, 수도 생활의 수련과 더불어 사도적인 수고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6월 말, 니콜라이 신부는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떠나 고향 마을에서 가족들과 사흘을 보냈다.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나눈 후, 그는 먼 여정을 떠났다. 그는 평생 간직해 온 스몰렌스크의 성모 마리아 성화를 가지고 갔다.⁴

일본으로 가는 길은 길고 험난했다. 니콜라이 수도사는 니콜라예프스크-나-아무르에서 겨울을 보냈다. 그곳에서 그는 시베리아의 계몽자 성 이노켄티(당시 캄차트카 주교)를 만났다. 성 이노켄티우스는 다가올 사역을 위해 그에게 축복을 내리고, 일본어 공부에 전념할 것을 권고했다. 수도사의 초라한 수도복을 본 이노켄티우스 주교는 좋은 벨벳을 사서 직접 니콜라이 신부님을 위해 수도복을 지어 주었다. 또한 그는 니콜라이 신부에게 크림 전쟁 참전 공로로 받은 청동 목걸이 십자가를 걸어 주었다.

1861년 6월 14일(2일), 수도사 니콜라이 신부는 군 수송선 “아무르”호를 타고 일본 하코다테 항에 도착했다.

하코다테

하코다테의 초대 러시아 영사로 임명된 사람은 요시프 안토노비치 고슈케비치(1814-1875)로, 여러 면에서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⁵. 그는 1858년 9월 셋째 주에 가족, 해군 장교, 의사, 성직자(이 성직자는

병으로 인해 영사관이 설립된 해에 본국으로 돌아갔다), 하인 4명과 여종 2명을 대동하고 하코다테에 도착했다.

니콜라이 수도사가 일본에 도착하기 전부터 러시아 영사관은 하코다테에 그리스도 부활 교회를 지어 놓았다(이후 하코다테 대화재 당시 이 교회는 소실되었고, 그 자리에 석조 성당이 건립되었다). 바실리 마호프 신부가 교회를 건축하고 봉헌식을 집전했다. 질병으로 인해 그는 불과 1년 만에 일본을 떠나 조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그 후 이. 아. 고슈케비치는 최고 수준의 신학 교육을 받은 사제를 파견해 달라고 시노드에 요청했다.

이 시기에 일본인들의 외국인에 대한 태도가 매우 적대적이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서구 국가들이 강요한 “평화” 조약들은 외국인을 “야만인”으로 간주하고 그들의 완전한 추방을 주장하던 사무라이들에게 극심한 불만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따라 개국과 외국인의 등장은 때로는 노골적인 폭력으로 드러나는 극심한 외국인 혐오의 확산을 부추겼다. 실제로 1861년 상반기 동안만 해도 6명의 외국인이 살해당했다. 일본인들이 거의 주적이나 다름없다고 여겼던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무장 공격이 교토, 에도, 요코하마에서 발생했다. 하코다테에서는 이러한 종류의 사건이 없었지만, 일본인들은 러시아인들에게도 다른 외국인들에 비해 조금도 뒤지지 않을 만큼, 어쩌면 더 큰 의심을 품고 있었다. 혼란과 함께 쇼

군에 반대하는 정서가 고조되었다. 1862년에 본격적인 내전이 시작되어, 1868년 쇼군의 퇴진과 천황 정부의 수립으로 끝났다. 운명의 장난처럼 쇼군 세력의 마지막 거점은 에노모토 함대가 점령한 하코다테였다. 그러나 이 함대는 1869년 5월에 이미 제국군에 의해 격파되었다. 천황은 에도로 거처를 옮겼고, 에도는 이후 도쿄, 즉 “동쪽의 수도”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계몽 통치”의 시대인 메이지 시대가 시작되었다.

“오직 주님만이 이 초창기 몇 년 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어야 했는지 아십니다. 세 가지 원수, 즉 세상과 육신과 마귀가 온 힘을 다해 저에게 반기를 들고, 첫 번째로 마주치는 어둡고 좁은 곳에서 저를 넘어뜨리려고 제 뒤를 바짝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혹들은 겉보기에는 지극히 정당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도 다른 모든 사람처럼 가정 생활을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겠는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훌륭하게 섬길 수는 없는가? 결국, 지금 러시아에는 일본보다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은가? “등등. 수천 가지의 유혹이 네 귀에 쏟아지는데, 이는 매일 매시간, 깨어 있을 때나 꿈속에서나, 집의 작은 방에서나, 교회에서 기도할 때나 마찬가지다. 이 모든 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많은 정신적 힘과 종교적 감정의 깊은 심화가 필요하다.”

설교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일본인들은 외국인을 짐승처럼 여겼고, 기독교를 악랄한 종파로 간주하여 오직 악명 높은 악당과 마법사들만이 속할 수 있는 집단으로 보았기” 때 문입니다. 게다가 젊은 선교사는 일본어를 할 줄 몰랐고, 일본의 종교와 역사, 문화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했다. “일본에 도착한 후, 나는 힘이 닿는 대로 이곳의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이 야만적인 언어, 즉 세상에서 단연 가장 어려운 이 언어를 제대로 파악하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었다. 이 언어는 자연스러운 일본어와 중국어가 서로 뒤섞여 있지만 결코 하나로 융합되지 않은 두 가지 언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 어쨌든 마침내 일본어를 말할 줄 알게 되었고, 원저작과 번역된 학술 저작에 사용되는 가장 단순하고 쉬운 글쓰기 방식을 익혔다.” 처음에는 하코다테 지사의 통역사가 그에게 일본어를 가르쳤다. 그 통역관의 추천으로 니콜라이 수도사는 비범한 박식으로 유명한 키무라 켄사이의 사설 학교에 다니게 되었다. 그곳에서 그는 일본 역사와 문학은 물론 불교, 신도, 유교도 공부했다. 키무라 켄사이 외에도 사가 주안과 니이지마 시메타가 그의 스승이었다. 서재에서의 학습에는 8년이 걸렸다. 거의 이 기간 내내 그는 하루 14시간씩 공부에 매진했다. 그 무렵 그는 문학 모임과 신사에도 다니기 시작했다. D. M. 포즈드네예프⁶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일본 문학을 끊임없이 읽고 일본인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함으로써 니콜라이 신부는 일본어 구어와 문어에 대한 놀라운 수준의 지식을 쌓았다. 그에게는 강한

외국 억양이 있었지만, 이는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본인이 그를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았으며, 풍부한 어휘와 유려한 문장 구성은 그의 말에 힘을 실어주어 모든 일본인을 감탄하게 만들었다... 문장은 간결했고, 표현은 가장 예상치 못한 것이었지만, 지극히 생생하고 강렬했다.”

“저는 우선 일본 역사와 종교, 그리고 일본 민족의 정신을 철저히 연구하여, 복음 전파를 통한 국가 계몽에 대한 희망이 그곳에서 어느 정도 실현 가능한지 알아보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될수록, 복음의 말씀이 우렁차게 울려 퍼지고 제국의 한 끝에서 다른 끝까지 빠르게 퍼져 나갈 때가 매우 가까워졌다는 확신이 더욱 커졌습니다.”

초기의 성과

정교회로 개종한 최초의 일본인은 타쿠마 **사와베**(1835-1913)였는데, 그는 토사 가문의 전직 사무라이이자 하코다테에 있는 오래된 신토 신사의 신관이였다. 사와베는 일본에서 모든 외국인을 추방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 비밀 결사의 일원이었으며, 뛰어난 검술가로 알려져 있었다. 그는 검술 사범으로서 러시아 영사 I. A. 고슈케비치의 아들을 가르치러 오곤 했다. 한때 그는 일본 전역을 떠돌며 검술 수업을 통해 생계를 꾸렸다. 하코다테에 온 후, 그는 신토 신사의 사제의 딸과 결혼하여 사와베라는 성을 물려받았을 뿐만 아니라, 장인의 대대로 이어져 온 사제 직위와 직책까지 물려받았다.

“사와베는 이교도 사회에서 평화롭고 평온하게 살았다. 도시에서 가장 오래된 신사의 신관으로서 그는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고, 상당한 수입을 올리며 오직 만족과 행복만을 누렸다. 그의 가족에는 아름다운 젊은 아내와 어린 아들, 그리고 장모가 있었다. 그는 자신의 조국과 조상들의 신앙을 자랑스러워했고, 그 때문에 외국인들을 경멸하며, 그들에 대한 가장 근거 없는 오해를 바탕으로 그들의 신앙을 증오했다.”

1864년에 일어난 이 엄격한 일본인의 개종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A. 플라토노바의 책에 실려 있다.

사와베는 영사관 저택에서 수시로 니콜라이 수도사와 마주쳤는데, 항상 그를 극도의 증오로 바라보았기에, 어느 날 니콜라이 수도사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물었다.

— 왜 나에게 그렇게 화를 내는 거요? 그러자 아주 단호한 대답이 돌아왔다.

— 당신들 외국인은 모두 죽여야 합니다. 당신들은 우리 땅을 엿보러 왔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설교로 일본에 가장 큰 해를 끼칠 것입니다.

— 그런데 당신은 이미 제 가르침을 알고 계신 건가요?

— 아니요, — 일본인은 당황했다.

— 상대방의 말을 듣지도 않고 판단하고, 더 나아가 비난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가? 알지도 못하는 것을 헐뜯는 것이 과연 옳은가? 먼저 내 말을 듣고 알아본 다음, 그 후에 판단하라. 만약 내 가르침이 나쁘다면, 그때서야 우리를 여기서 쫓아내라. 그래야 네가 공정한 것이다.

— 자, 말해 보시오!

니콜라이 수도사의 말은 사무라이를 크게 감동시켰다. 그는 수도사와 다시 만나 대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허락을 구했다. 얼마 후 니콜라이 신부는 이미 이시도르 대주교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다. “고대 종교의 사제 한 명이 우리 신앙을 배우기 위해 저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가 신앙을 저버리지 않거나 (기독교를 받아들였다는 이유로 사형에 처해) 죽지 않는다면, 그에게서 많은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1865년 4월 20일자 편지에서 니콜라이 수도사는 다음과 같이 썼다. “그 사제는 저에게서 세례를 받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교양이 풍부하고, 총명하며, 웅변이 뛰어나고, 온 마음을 다해 기독교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의 삶의 유일한 목표는 기독교를 전파함으로써 조국에 봉사하는 것이며, 나는 그가 그 목적을 위해 무언가를 이루기도 전에 무모한 행동을 하지 않을까 우려하여 끊임없이 그의 요청을 제지해야만 한다.”

사바베가 처한 상황의 위험성은 그의 다음 이야기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이 책[복음서]을 공개적으로 읽을 수는 없었지만, 읽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다. 그래서 나는 내 미야[즉, 이교 사원]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 책을 읽기로 꾸며냈다. 이교 예배서 대신 복음서를 내 앞에 놓고, 평소처럼 복을 두드리며 읽곤 했다. 아무도 내가 외국 ‘이단’을 읽고 있다고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와베는 자신의 친구인 의사 사카이 아츠노리를 니콜라이 신부에게 데려왔다. 얼마 후 세 번째 친구인 의사 우라노도 그들과 합류했다. 일본인들은 스스로 교리 교육을 진행하기 시작했고, 1868년 봄이 되자 이미 세례를 받을 준비가 된 사람이 20명에 달했다.

이 무렵 나가사키에서는 다시 가톨릭 신자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었고, 하코다테에는 새로운 관리 한 명이 부임했다. 1868년 4월, 니콜라이 수도사는 자신의 서재에서 세 친구에게 비밀리에 세례를 베풀었고, 그 후 그들은 하코다테를 떠났다. 그들은 파벨 사와베, 요한 사카이, 야코프 우라노였다. 바로 그 때, 메이지 시대가 시작되기 5개월 전, 일본 정교회가 탄생했다.⁷

사와베에게는 곧바로 끔찍한 시련이 닥쳤다. 그의 아내는 정신이 나갔고, 몇 달 뒤 병발작 중에 자신의 집을 불태워 버렸다. 사와베는 끝내 피난처를 찾지 못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하코다테로 돌아왔다. 이제 그는 생계를 꾸릴 수단뿐만 아니라 머물 곳조차 없게 되었다. 바로 그 무렵인 1868년, 그는 감옥에

간했다. 성 니콜라스는 이렇게 썼다. “내 눈앞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한 사람이 새로운 삶으로 태어나는 과정이 펼쳐졌고, 내 시야 너머에서는 이미 또 다른 과정, 즉 갓 태어난 파블로의 힘을 시험하고 단련하는 과정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의 여덟 살 난 아들은 상속권에 따라 같은 우상 숭배 신전의 제사장이 되었는데, 이를 통해 아들은 자신과 병든 어머니를 부양할 수 있게 되었다. 훗날 파블로 사바베는 아들이 기독교인이 된 모습을 보며 위로를 얻었다. 시련은 오히려 파블로의 신앙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고, 1875년에 그는 사제로 서품되었다.

“우리에게 두 번째로 기독교인이 된 분은 **사카이 요한** 씨였습니다. 그는 그 지역의 의사였으며, 기독교로 개종한 사와베 씨의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사와베 씨는 친구도 같은 길로 이끌고자 애썼지만, 사카이 씨는 변론에 능해 그를 설득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와베 씨는 그를 더 자주 제 집으로 초대하기 시작했고, 우리 둘이서 그를 설득했습니다. 마침내 사카이 씨도 세례를 받고 심지어 사제 서품까지 받았으나, 그 직분을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 번째 기독교인은 우라노 야코브 씨로, 그 역시 전직 의사였다. 그에게는 하코다테에서 현재의 요한 오노 신부님에 의해 성세례가 거행되었고, 그 후 몇몇 다른 이들도 세례를 받았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인물들은 우리 초기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인물들이었다. 그 후 성세례를 받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더 늘어났고, 일본에서 기

독교 신앙을 체계적으로 전파할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목적을 위해, 이에 대한 공식적인 권한을 얻기 위해 저는 잠시 러시아로 떠났고, 그곳에서 성직자회의로부터 이에 대한 허가와 축복을 받은 후 다시 일본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와베 씨가 저를 찾아왔는데, 그 와중에 제가 일본을 비운 동안 사카야 씨의 기이한 행실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사카야 씨는 자신의 사업에서 가능한 한 많은 수익을 올리는 데만 온 힘을 쏟고 있었던 반면, 다른 기독교인들은 오히려 모든 것을 형제들과 나누려고 애쓰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사카야 씨를 질책하려 했으나, 그가 직접 찾아오자마자 사정은 곧바로 밝혀졌습니다. 저를 찾아온 사카이 씨는 자신이 모은 100엔(약 200루블)을 제시하며, 이를 교회 일에 사용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와베 씨가 사카이 씨의 걸보기에는 이상해 보였던 행동에 대해 가졌던 의문이 풀렸습니다.

걸보기에는 비슷하게 이상해 보이는 또 다른 사건이 **토미 피터** 씨에게 일어났다. 어느 날 갑자기 그가 어디론가 사라진 것을 모두가 눈치챘다. 아무도 그가 어디로 숨었는지 몰랐다. 나는 그의 아내에게 물었지만, 그녀도 몰랐으며, 그녀의 얼굴에는 슬픔도, 심지어 특별한 걱정 기색조차 드러나지 않았다. 이 모든 일은 매우 수수께끼 같았고 꽤 오랫동안 계속되었다. 그런데 그로부터 11일이 지난 어느 날 저녁, 11시경, 토미 페트르 씨가 사카야 씨와 함께 나를 찾아왔다. 보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수척해져 있었고, 색

이 완전히 변해버린 얼굴에 뼈가 흰히 드러나 있었다. 그저 보는 것만으로도 안타까울 정도였다. 제가 어디에 있었는지, 왜 그렇게 심하게 수척해졌는지 묻자, 그는 그동안 잠과 음식을 절제하며, 자신이 최근에 누리게 된 진리의 빛으로 이교도 형제들이 하루빨리 깨달음을 얻도록 기도하는 데 시간을 보냈다고 대답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는 신앙에 대한 그토록 감동적인 열렬한 충성심에 크게 놀랐다. 하지만 그래도 나는 그에게 앞으로는 교회의 규정에 따라 그런 일을 행해야 한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지 않으면 건강에 큰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로부터의 도움

1869년 말, 니콜라이 수도사는 휴가를 신청하고 러시아로 떠나, 일본에 러시아 선교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성직자 회의에 청원했다.

니콜라이 수도사는 1870년 2월에 러시아에 도착했다. 그의 청원은 1870년 4월 6일 받아들여졌으며, 알렉산드르 2세는 일본에 선교단장, 선교사 수도사 3명, 그리고 부제 1명으로 구성된 러시아 선교단을 설립한다는 성직자회의의 결정을 최고로 승인했다. 예상 지출의 절반은 국고에서 부담했고, 나머지 절반은 종교부의 인쇄 자본에서 충당되었다. 총 6,000루블이 연간으로, 10,000루블이 일회성으로 선교단에 배정되었다. 선교 거점은 도쿄, 교토, 나가사키, 하코다테에 위치했다. 선교단의 단장으로는 히에로모

나흐 니콜라이가 임명되었으며, 그는 아르히만드리트 성품으로 승품되었다. 선교단은 캄차카 주교구의 관할을 받았다. 선교사들의 의무는 히어로모나흐 니콜라이가 제출하고 시노드에서 승인한 “선교 지침서”에 명시되어 있었다.

니콜라이 대수도원장 본인은 1879년에 다음과 같이 썼다: “정교회가 일본에서 지닌 특징은, 불과 8년 동안 존재했고 그 기간 동안 두 명의 선교사만이 활동했으며, 어떠한 확실한 물질적 지원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교회 선교단의 신자 수가 가톨릭과 모든 개신교 선교단을 합친 것보다 이미 두 배나 더 많았다는 점입니다.”

일본으로 떠나기 전, 니콜라이 대수도원은 노년의 아버지를 뵙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그는 1871년 3월에 하코다테로 돌아왔다. 그가 자리를 비운 동안에도 복음 전파는 계속되었다. 그 해 말, 니콜라이 대수도원은 센다이에서 11명을 세례했다.

1872년, 키예프 신학 아카데미⁸의 후보생인 이에로모나흐 아나톨리(티하이)가 하코다테에 도착했다. 니콜라이 대수도원은 그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이보다 더 훌륭한 조력자는 바랄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는 하코다테 교회를 아나톨리 신부에게 맡기고 1872년 2월 4일 도쿄로 옮겨갔다.

성경 및 기타 필수 서적의 번역

성인이 하코다테에서 이미 시작했던 주요 사업은 성경과 예배 서적을 일본어로 번역하는 것이었다. 이미 1869년에 성 니콜라스는 다음과 같이 썼다.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일본에서는 적어도 가까운 미래에 수확할 곡식이 많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내 개인적인 활동을 제외하면 우리 측에서 활동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비록 제가 이전과 같은 방향으로 활동을 계속한다고 해도, 한 사람의 힘은 이곳에서 바다에 떨어진 물방울과 다름없습니다. 신약성경 번역 하나만 해도, 제대로 하려면(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2년은 더 전념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구약성경 번역도 필요합니다. 게다가, 아무리 작은 기독교 교회라도 있다면 일본어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성서 역사, 교회 역사, 전례학, 신학 같은 다른 책들은 또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 또한 시급히 필요한 과제들입니다. 이 모든 것과 그 밖의 유사한 것들은 “일본어”로 번역되어야 하는데, 이 언어가 과연 외국인에게 언제쯤 익숙해져서, 외국인이 보통 자신의 모국어로 쓰는 것만큼이나 적어도 절반 정도는 쉽고 빠르게 글을 쓸 수 있게 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훨씬 훗날 그는 번역 작업에 “선교 활동의 모든 핵심이 담겨 있다”고 썼다. 현재는 어느 나라에서든 선교 활동이 구두 설교만으로 국한될 수는 없다. 종을 흔들며 거리를 누비며 청중을 모으던 프란치스코 사베리오의 시대는 지났다.

일본의 경우, 주민들의 독서 사랑과 인쇄물에 대한 존중이 높아진 만큼, 신자들과 복음화 대상자들에게 무엇보다도 모국어로 쓰여진 책을 제공해야 하며, 반드시 문체가 훌륭하고 정성스럽게, 아름답게, 그리고 저렴하게 출판된 것이어야 한다. 우리에게서는 가톨릭 및 개신교와의 신앙적 차이를 명확히 설명해 주는 책들이 특히 중요합니다.”

11. 성당 설계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건축가 미하일 아레피예비치 슈루포프의 작품이다. 1923년 지진으로 소실된 이코노스타스는 상트페테르부르크 출신의 성화화가 바실리 마카로비치 포세호노프가 그렸다. 성당 건립을 위한 기부금은 러시아 전역에서 모였다. 모스크바만 해도 200,000루블을 기부했는데, 이는 전체 공사비의 40%에 달하는 금액이었다.

12. 러시아 왕위 계승자의 일본 방문 또한 이 행사를 계기로 이루어졌으나, 오쓰에서 발생한 사건 이후 황태자는 일본을 떠났다.

하코다테에서는 통역이 없어 예배가 교회 슬라브어로 거행되었으며, 일본어로는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사도신경”, “주님의 기도”만 노래하고 낭독되었다.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기도를 번역할 때, 종종 범죄자에 대한 자비로 받아들여지는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해야 할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니콜라이 주교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에게는 우리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바레마’라는 단어를 사용할 것이다.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자비롭게 대하고’, 고대 러시아어의 본래 의미대로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말이다.” 같은 하코다테에서 성 니콜라이

는 중국어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으나, 곧 중국어 번역본의 불완전함을 깨닫고 러시아어보다 더 정확하다고 여긴 교회 슬라브어로 된 신약 성경 번역으로 전환했다. 각 구절은 벨가타, 셉투아진타, 그리고 영어 번역본과 대조되었다. 어려운 구절에서는 성 니콜라이가 성 요한 크리소스톰의 주석을 참고했다. 4~5시간 동안 작업해도 그는 15절 이상을 번역하지 못했다. 성인이 복음서와 사도서(그의 첫 번째 번역본) 번역 작업을 마친 후, 이 책들도 일본어로 읽히기 시작했다. 그 외에도 하코다테에서는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로마서의 절반이 번역되었다. 그 무렵 (중국어에서) 간략한 기도문, 세례 예식과 이교도 입교 예식, 성 디미트리 로스토프스키의 『정통 신앙고백』, 입교 준비자들을 위한 교리문답, 구약성경 요약, 미하일 주교의 『해설 복음서』, 플라톤 대주교의 『윤리적 신학』이 번역되었다.

13. 1923년 광저우 지진 당시 돔이 무너졌고, 대성당의 모든 장식과 이콘ostasis는 화재로 소실되었다. 3만 권에 달하던 선교부 도서관도 전소되었다. 극심한 열기로 녹아내린 종들조차도 소실되었다. 1923년 10월 20일 열린 긴급 공의회에서 성당을 재건하기로 결정되었다. 1929년 12월 15일, 재건된 성당이 봉헌되었다. 성당을 재건축한 일본 건축가 오카다 시니치는 건물의 전반적인 비율은 변경하지 않았으나, 불교 사찰 건축에서 차용한, 새가 하늘을 날거나 높이 치솟는 것을 상징하는 미묘한 곡선을 돔에 부여했다.

도쿄로 이주한 성 니콜라스는 무엇보다 먼저 『옥토이흐』를 번역했고, 그다음 『색채 트리오디』와 『사순절 트리오디』를 번역하는 한편, 복음서의 새로운 번역 작업에도 착수했다. 구약성경에서는 일 년 주기의 예배를 집전하는 데 필요한 모든 부분을 번역했다. 그는 가톨릭과 개신교의 다소 교조적인 번역본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번역본에 휩쓸리거나 무의식적으로 내용을 차용할까 두려워 심지어 읽지도 않으려 애썼다. 성인의 간절한 소망은 성경 전체를 번역하는 것이었다. 1910년에 그는 자신의 계산에 따르면 이 작업을 완료하는 데 아직 5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복음서와 예배 문서를 대중의 발달 수준에 맞추어 낮춰서는 안 되며, 오히려 신자들이 복음서와 예배 문서를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높아져야 한다. 복음서에서 저속한 언어는 용납될 수 없다. 만약 나에게 완전히 동일한 두 개의 한자나 표현이 나타나고, 둘 다 일본인의 귀와 눈에 똑같이 고상하게 들리고 보인다면, 나는 물론 널리 통용되는 것을 선호하겠지만, 결코 무지에 양보하지 않으며 번역의 정확성에 있어서는 조금의 타협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비록 제가 일본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은 한자를 사용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저 스스로도 때때로 제 번역을 이해하기 위해 일본인들이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는 그들에게 정교회 자체가 낯선 것에서 비롯된 것이 큰 이유입니다...”

번역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어려움과 위험은, 많은 한자가 수세기 동안 불교도와 신도들에 의해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그 한자들에 상당히 명확한 의미적 뉘앙스가 부여되었고, 이로 인해 정교회 맥락에서 이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위험해졌다는 점과도 관련이 있었다¹⁴. 몇몇 경우, 성하께서는 특정 구절이나 개념에 대한 번역본을 각 본당에 배포하며, 성직자와 평신도들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저녁 6시 정각이 되면 주교님의 거처로 그의 전담 번역 담당자인 파벨 나카이가 들어왔다. 그는 훌륭한 학식을 갖추고, 비범할 정도로 근면하며, 정교회 신앙에 전적으로 헌신한 인물이었다. 그는 주교님 옆의 낮은 의자에 앉아 주교님의 구술에 따라 필기하기 시작했다. 작업은 보통 4시간 동안 이어지다가 밤 10시에 끝났다.

“내 앞에는 슬라브어와 그리스어로 된 예배 문구가 놓여 있고, 이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책들도 곁에 준비되어 있다. 내 보좌관 곁에는 중국어와 일본어 사전 및 문법서가 있으며, 우리 앞에 베이징 주재 우리 선교부에서 가져온 중국어 예배 문구도 놓여 있다. 슬라브어 본문을 보며 그리스어 본문으로 대조하면서, 저는 의미를 문자 그대로 정확하게 표현하려고 노력하며 번역을 받아쓰게 하고, 동료는 중국 한자와 일본어 알파벳 문자를 섞어 기록합니다. 이 단계에서 번역의 어려움은 일본어 문법이

우리와 정반대라는 점에 있습니다. 즉, 일본어에서는 주어를 앞에 두어야 하며, 주어와 술어 사이에는 번역문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종속절과 도입절이 있더라도, 이 모든 것은 주술어 앞에 위치해야 합니다; 각 종속절과 도입절에서도 마찬가지로 구성 요소의 배치가 동일해야 한다.

노래나 기도가 구술되고 그 부분들의 구문적 관계가 정해지면, 그때부터 작성된 내용을 다듬는 작업이 시작되는데, 이때 나의 주된 관심사는 텍스트의 의미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반면 내 동료는 문법적·문체적 구문의 정확성과 우아함을 위해 그 못지않은 정성을 기울인다. 이 작업 단계가 가장 어렵고 정성이 많이 드는 부분이다. 바로 이 단계에서 중국어와 일본어에 대한 학문적 지식이 특히 필요한데, 첫째, 수많은 동음이의 한자 중에서 가장 널리 쓰이고 이해하기 쉬운 것을 선택하기 위해 각 한자의 의미를 명확히 알아야 하고, 둘째, 한자에 중국어 발음을 그대로 둘지 아니면 일본어 발음을 부여할지 논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한자가 중국에서 일본으로 전해지면서 중국식 단일 발음을 함께 가져왔기 때문이다. 이 발음은 오늘날까지도 한자에 남아 있으며, 그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은 학식 깊은 학자들뿐이지만, 단계적으로 축약되고 대중화되면서 상당한 정도까지 서민 계층까지 널리 퍼져 나갔기 때문이다; 동시에 거의 모든 한자는 일본어로 번역되어 각자의 일본식 발음을 가지고 있다. 무엇을 따라야 할까? 겉보기에는 순수한 일본어를 고수해야 할 것 같지만,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에게조차 한자

의 일본식 발음이 중국식 발음보다 덜 이해하기 쉬운 경우가 매우 자주 발생한다. 셋째, 한자에 일본어 알파벳 표기를 생략할지, 아니면 한자의 난이도나 모호성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표기를 추가할지 고려해야 한다. 한마디로, 번역에 어떤 언어를 채택할지 결정해야 한다. 번역 대상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한자와 발음에 구애받지 않고 어떠한 표기법도 필요로 하지 않는 가장 고상한 학문적 언어가 우리에게 적합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언어는 중간 수준의 학자들에게는 불편할 것이며, 학식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아예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번역한 내용이 모든 사람에게 접근 가능해야 하며, 바로 그 점이 번역의 가장 큰 장점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중의 언어, 즉 민중의 언어가 우리를 끌어당기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의 번역은 지나치게 저속해져 일반 서민층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즉시 외면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중간 수준의 언어를 사용하기로 정했다. 우리는 이를 따르려고 노력하지만, 기준이 모호하고 경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끝없는 논쟁의 여지가 넓게 열려 있다. 이러한 논쟁 속에서 나는 모든 면에서 최대한의 보편적 이해성을 옹호하려고 애쓰는 반면, 내 동료는 저속한 표현을 피하고 언어의 우아함을 지키려고 노력한다. 마침내 이러한 모든 어려움이 해소되고, 번역본이 확정되어 책 전체가 번역되면, 우리는 다시 원문과 꼼꼼히 대조하며 검토하고, 책 전체에 걸쳐 동일한 원문의 단어와 표현에 대해 동일한 번역 한자와 발음이 사용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신학교 출신 학생들로 구성된 번역가 집단은 러시아 신학 서적뿐만 아니라 러시아 문학 작품의 번역 작업에도 참여했다(초기에는 러시아에서 신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만 번역 부서에 소속되었으나, 이후 일본인들도 합류하게 되었다). 그들 중에는 신학교 교장 이반 세누마와 그의 부인 안나 루키니치나 세누마, 러시아에서 10년을 보낸 신학교 철학 및 신학 교수 코니시 마스타로(나중에 개신교로 개종함), 저명한 번역가이자 학자인 노보리 쇼무가 있었다. 성인은 이렇게 썼다. “번역하고 읽게 하라. 러시아 문학을 알고, 푸시킨, 레르몬토프, 톨스토이 가문, 도스토옙스키를 알게 되면 러시아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전쟁

1900년부터 반러시아 정서가 다시 고조되었는데, 이는 교회에 대한 태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었다. D. M. 포즈드네예프는 신문 『니혼』에서 다음과 같은 대표적인 기사를 인용한다. “정교회는 일본의 머리에 저주를 퍼붓고 일본의 패배를 기원하는 악의 소굴이다. 그곳은 언제나 러시아를 위해 일하는 스파이들의 중심 거점이었다. 일본인들은 도시 전체 위로 솟아올라 마치 황실 궁전 자체에 경멸을 보내는 듯한 러시아 대성당의 돔을 증오하며, 매주 일요일 아침마다 요란한 소리로 주민들의 평화로운 잠을 방해하는 성당 종소리도 증오한다.”

1902년 일본과 영국 사이에 동맹이 체결된 후, 일본과 러시아 간의 전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1903년 총회에서 니콜라이 주교는 일본 정교회 신자들을 극도로 불안하게 했던, 러시아와의 전쟁에 참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해야만 했다. 그는 그들이 온 국민과 함께 조국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답했다. 전쟁이 발발할 경우 그들은 러시아를 적으로 여겨야 하겠지만, “적과 싸운다고 해서 그들을 미워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조국을 지키는 것일 뿐”이라고 했다.

1904년 2월 5일, 일본은 러시아와의 외교 관계를 단절했다. 당시 선교부에서 활동하던 두 명의 성직자는 고국으로 돌아갔다. 일본 교회의 성직자와 평신도들은 주교에게 일본에 남아 달라고 요청했다. 니콜라이

주교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대성당 옆의 작은 아파트에 머물기로 결심했다고 답했다. “저는 전쟁 선포가 우리 교회의 활동에 아무런 변화도 가져오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교리 교사들은 구세주의 복음을 계속 전파할 것이며, 제자들은 선교 학교에 계속 다닐 것이고, 저 자신은 전적으로 우리 예배 서적의 번역에 전념할 것입니다...

오늘은 관례대로 대성당에서 예배를 집전하지만, 이제부터는 우리 교회의 공개 예배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저는 일본 제국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본과 나의 조국 사이에 전쟁이 선포되었으니, 나는 러시아 신민으로서 일본이 나의 조국을 이기는 것을 위해 기도할 수 없다. 나 또한 조국에 대한 의무가 있으며, 바로 그 때문에 여러분이 조국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기쁠 것이다.” 러시아와의 전쟁 선포에 불안해하던 일본 정교회의 모든 교구에는 ‘회람문’이 발송되었는데, 그 안에서 주교는 일본 기독교인들이 충성스러운 신하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축복하면서도 다음과 같이 상기시켰다.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전투에 나서야 할 분들은, 적에 대한 증오가 아니라 동포에 대한 사랑으로 싸우십시오... 조국에 대한 사랑은 거룩한 감정입니다... 그러나 지상의 조국 외에도 우리에게서 하늘의 조국이 있습니다... 이 조국은 바로 교회이며, 우리는 모두 그 구성원으로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들이 진정으로 한 가족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주

어진 대로 하늘의 조국에 대한 의무를 함께 다합시다... 또한 주님께서 깨어진 평화를 하루빨리 회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성인은 러시아와의 모든 서신 교환을 중단하고 전적으로 번역 작업에 전념했다.

일본에 러시아 포로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을 때(총 수는 7만 3천 명에 달했다), 성 니콜라이 주교는 일본 정부의 승인을 받아 ‘전쟁 포로 영적 위로 협회’를 설립했다. 포로들을 돌보기 위해 러시아어를 구사하는 사제 다섯 명이 선발되었다. 일본에 도착한 모든 포로에게 일본 교회는 은 십자가를 축복해 주었다. 포로들에게는 성화와 책이 제공되었다. 주교님 자신도 여러 차례 그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전쟁 중 니콜라이 주교의 활동은 일본뿐만 아니라 러시아에서도 극히 높이 평가받았다. 니콜라이 2세 황제는 1905년 말 니콜라이 주교에게 다음과 같이 썼다. “...주교님은 세속의 지배와 모든 부족 간의 적대감과는 거리가 먼 그리스도의 정교회가 모든 부족과 언어를 동등하게 포용한다는 사실을 모든 이 앞에 보여주셨습니다. <...> 주님은 그리스도의 유언에 따라 귀하께 맡겨진 양떼를 버리지 않았으며, 사랑과 믿음의 은총이 귀하에게 전쟁의 불같은 시련을 견뎌낼 힘을 주었고, 전쟁의 적대감 한가운데서도 귀하의 수고로 세워진 교회에서 평화와 믿음, 기도를 지키게 하였습니다.”

전쟁 기간 동안 성 니콜라이가 보여준 드문 재치와 지혜는 전쟁이 끝난 후 일본 사회의 눈에서 그의 위상을 더욱 높여 주었습니다. 성인의 이러한 위상은 전쟁의 심리적 후유증을 빠르게 극복하는 데 기여했으며, 1917년까지 지속된 러일 관계 개선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전후 시기는 새로운 시련을 가져왔다. 러시아에서 일본 정교회 선교부를 향한 기부금 흐름이 거의 끊겼다. 그 결과 선교부는 30명의 교리 교사를 해고하고 교리 교사 양성소를 폐쇄할 수밖에 없었다.

1908년, 교토 교구에 세르기이(티호미로프) 주교¹⁵가 부임했다. 그는 빠르게 일본어를 익히고 일본 전역을 누비며 적극적인 선교 활동에 매진했다. 그의 등장은 니콜라이 대주교에게 큰 위안이 되었으며, 그는 다음과 같이 썼다. “이제 나는 선교 사업이 든든한 손에 맡겨졌다는 확신을 가지고 평안히 죽을 수 있다.” 또한 “...우리에게 이런 열정적인 선교사 두 명이 더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러시아를 바라본다.”

생애 말년과 서거

1911년 7월, 니콜라이 신부님의 일본 땅에서의 사역 50주년을 성대히 기념했다. 세르기(티호미로프) 주교는 다음과 같이 썼다. “일본 각지에서 사제들과 교리 교사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들만 해도 120명이 넘었고, 지방의 많은 신자들도 열성적으로 참여했다. 그리고 75세의 노신부는 매일 이른 아침부

터 늦은 밤까지 자신의 방에 앉아 사제들이 전하는 본당 현황 보고와 교리 교사들이 담당 구역 내에서의 설교에 대해 들려주는 이야기를 경청하거나, 먼 곳에서 온 어떤 할머니와 친절하게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총회가 시작되었다... 그곳에서 처리해야 할 일과 분주함이 적을 리가 없지 않은가? 기념일 축하 행사... 하루 동안 미사, 기도회, 호텔에서 귀빈들과의 점심 식사, 음악회가 이어졌다. 우리 젊은이들은 이것으로 일정을 마쳤다. 하지만 75세의 노장 신부는 수루가다이 학교 동창생들의 모임에 초대받았다. 그래서 가셨다. 그리고 듣기보다는 말하고 가르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주교님께서 어떻게 그런 하루를 견뎌내셨는지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게다가 내일도 쉴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4시간이나 걸리는 긴 축사 낭독. 그리고 저녁에는 선교소 마당에서 수백 명의 기독교인들과 함께하는 만찬... 하지만 제 생각에는, 마지막 순간만 아니었다면 고인께서는 그날도 비교적 무사히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연설에 고무된 주교님은 일어서시더니, 비범한 기세로 고개를 핵 치켜들고, 저녁 식사를 하던 수백 명의 기독교인들로 가득 찬 넓은 광장 전체에 울려 퍼질 만한 목소리로, 일본 천황 폐하를 기리기 위해 일본 국가를 부를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그의 종교적 관용 덕분에 기독교가 확산될 뿐만 아니라, 비록 후원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완전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 일본 천황을 기리기 위해 일본 국가를 부를 것을 제안했다. 주교님의 비범한 흥분과 흥조를 띤 얼굴을 직접 보았어야 했다. 주교님께서 가장 먼저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부르셨던 모습을 직접 들어보아야 했다... 이미 그리 젊지 않은 몸에서 타오르는 그 젊은 열정을 직접 보아야 했다. 그러면 주교님의 상심한 마음에 이 순간이 흔적도 없이 지나갈 수 없었음을 누구나 분명히 깨달았을 것이다...”

그 무렵의 신경적 긴장과 과로로 인해 주교님께서 앓고 계시던 심장 천식이 악화되었습니다. 주교님의 기력은 급속히 쇠약해져 갔습니다.

임종을 앞두고 주교님은 세르기 주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쟁기보다 높지 않습니다. 농부가 밭을 갈다 보니 쟁기가 닳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쟁기를 버렸습니다. 나도 닳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도 버려질 것입니다. 새로운 쟁기가 밭을 갈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니 잘 보십시오, 밭을 갈아 주십시오! 정직하게 밭을 갈아 주십시오! 지칠 줄 모르고 밭을 갈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일이 자라나기를! 그래도 하나님께서 바로 너를 통해 밭을 갈게 하셨다는 사실은 기쁜 일이다. 그것은 곧 너도 녹슬지 않았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밭에서 일하며 네 영혼도 어느 정도 정화되었으니, 이를 위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드리자.”

니콜라이 대주교는 1912년 성탄절 첫날에 마지막으로 미사를 집전했다. 며칠 후 그는 츠키지의 성루카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나 2월 5일, 미처 마무리하지 못한 일을 서둘러 끝내려던 주교님은 자신을 스

루가다일로 다시 데려가 달라고 고집했고, 다시 번역 작업에 매진했다. 2월 13일, 그는 선교지의 현황에 대한 마지막 보고서를 성직자회의에 제출했다.

2월 15일, 주교님은 평소 옆방에서 진행되다가 의사들의 권고로 취소되었던 성가대 연습을 재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자신이 좋아하던 “바빌론 강가에서”를 불러 달라고 요청했다.

밤이 되자 헛소리가 시작되었고, 그 과정에서 임종하시는 분은 “부활”이라는 말을 여러 번 되뇌이셨습니다. 2월 16일 7시 45분, 성 니콜라이 대주교의 서거를 알리는 큰 성당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15. 미트로폴리트 세르기이(티호미로프)는 1945년 4월 “러시아 스파이”라는 혐의로 체포되었다. 그는 같은 해 8월 10일에 사망했다.

세르기 주교는 다음과 같이 썼다. “주교님께서서는 더 이상 신음하지 않으십니다. 간호사가 주교님께 주사를 놓아 드리는 일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조용히 낭독하는 소리만이, 주교님께서 그 사역에 온 성스러운 생애를 바치셨던 바로 그 말씀이,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병상에서 활기차게 대화를 나누며 향후 10년간의 사역 계획을 세우시던 그분에게서 이제 뚜렷이 드러나는 죽음의 신비를 깨뜨릴 뿐입니다. <...>

대주교님의 유해는 십자가 성당에 안치되어 있었다... 2월 4일 토요일[구력] 아침과 저녁, 밤샘 기도 후, 일요일 성찬예배 후와 저녁, 2월 6일 월요일 아침과 저녁에 이곳에서 엄숙한 추도 미사가 거행되었는데, 매번 성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주교님의 유해는 아직 관에 안치되지 않았는데, 관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일본에서 사목 활동을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이 며칠 동안 기이한 관습을 목격하게 되었다! 잘 알려진 한 기독교인 그룹이 상호 합의하에 저녁부터 고인의 유해 곁에 모여 아침까지 깨어 있으면서 복음서 낭독을 경청했다.

주교님의 유해는 벨고로드의 성 요아사프의 유물에서 나온 성유로 덮아냈습니다. A. P. 시넬니코바가 기부한 돈으로 야나카 묘지(우에노 구)에 작은 땅을 구입했고, 2월 22일 그곳에서 장례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아침부터 네 개의 제단에서 니콜라이 대주교의 영혼 안식을 위한 네 차례의 성찬식이 거행되었다. 11시에 그리스도 부활 대성당에서 장례 미사가 시작되었는데, 이는 주로 일본식으로 진행되었다. 다른 화환들 중에서 일본 천황이 보낸 화환이 특히 눈에 띄었는데, 외국인이 이러한 영예를 누리는 일은 극히 드문 일이었다. 장례 미사가 끝난 후 관은 대성당 주위를 한 바퀴 돌고 수레에 실렸다. 10킬로미터에 걸쳐 늘어선 장례 행렬은 묘지로 향했다. “바람이 우리 깃발을 미친 듯이 펄럭인다. 깃발을 반기게 내리고 운반해

야만 했다. 남학생들과 여학생들이 행진하고 있다. 모두 똑같은 복장을 하고 있다. 모두 손에는 야자나무 가지를 들고 있는데, 이는 일본에서 주교님의 사명이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의 상징이다. 수많은 꽃과 수백 개의 화환. 성화상과 십자가. 성의를 입은 사제들과 부제들... 많은 교리 교사들이 스티하르를 입고 있다. 완전한 예복을 차려 입고 지팡이를 든 주교. 주교의 훈장들. 주교가 착용했던 주교직의 모든 상징물들. 마지막으로 귀중한 관이 실린 마차, 금실로 수놓은 궁정 제복을 입은 러시아 대표.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기독교인들의 행렬...”

성 니콜라이 대성당

대성당 건축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과 대중의 지지가 필요했다. 기금 모금을 위해 아르히만드리트 니콜라이는 러시아로 향했다. 1879년부터 1880년까지 그는 상트페테르부르크, 모스크바, 카잔, 키예프, 오데사를 방문하며 자발적인 기부금을 모았다.

러시아에서는 국민교육부 장관이자 훗날 국가평의회 의원이 된 예피미이 바실리에비치 푸티아틴 백작이 이 선교 활동에 항상 큰 지지를 보냈다. 1853년, 부제독 푸티아틴은 기함인 프리깃함 “팔라다”호를 타고 러시아 해군을 위해 “일본을 개척”했으며, 두 나라 간의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일본과 러시아 간의 첫 번째 공식 우호 조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사교계와 정치권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던 푸티아틴은 니콜라이를 친아들처럼 대하며 선교단의 필요를 애정 어린 마음으로 돌보았다. 제독의 딸 올가 역시 니콜라이 신부와 친분이 두터웠으며, 1884년에는 수녀가 되어 일본으로 건너가 그의 선교 활동을 돕기 시작했다.

일본 선교부의 성과를 지켜본 성직자 회의는 그곳에 주교를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니콜라이 자신 외에는 다른 후보자를 떠올릴 수 없었다. 1880년 3월 30일, 그는 알렉산드로-네프스키 수도원에서 주교

서품을 받았다. ‘도브로볼노’ 호를 타고 제2의 고향으로 돌아오던 중, 니콜라이 주교는 팔레스타인을 방문하여 주님의 성묘에 경배하고, 야자나무 가지를 일본으로 가져왔다.

초기 미래 성당의 설계도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건축가이자 교수인 A. 슈루포프가 작성했다. 건물의 평면도는 그리스식 십자가를 닮았으며, 돔은 비잔틴 양식으로 설계되었다. 니콜라이는 칸다 지역의 스루가다이 언덕 정상에 있는 토지를 매입했는데, 이곳에는 중세 시대에 에도(옛 도쿄) 항구로 들어오는 선박들의 등대 역할도 겸하던 화재 감시탑이 우뚝 서 있던 곳이었다. 건축은 19세기와 20세기 전환기에 도쿄에서 황궁을 포함해 50여 채의 건물을 지은 영국 건축가 조슈아 콘더가 맡았다. 7년 후인 1891년, 콘더는 니콜라이 주교에게 그리스도 부활 대성당의 열쇠를 전달했다. 성당 봉헌식에는 19명의 일본인 사제와 4천 명 이상의 기독교인이 참석했다. 민들 사이에서 “니콜라이도”(직역하면 “니콜라이 성당”)라고 불리는 이 정교회 성당은 곧 일본 수도의 명소가 되었다. 러시아 선원들은 그 윤곽에서 러시아 해군의 주 성당인 크론슈타트의 성 니콜라이 해군 대성당의 모습을 떠올렸다. 도쿄를 초토화시킨 1923년의 대지진이 발생하기 전까지, 이 지진 이후 고층 건물 건설이 본격화되었지만, 입지가 뛰어난 이 정교회 대성당은 도시에서 가장 높은 건물 중 하나였다. 이로 인해 “대성당이 황궁보다 높이 솟아 있는 것은 무례하다”, “이는 러시아 측의 제멋대로인 행태다”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그러나 건축의 규모와 대성당이 일본 수도에서 차지한 위치는 니콜라이 주교 본인의 위상과 당시 일본 사회에서 그가 수행하게 된 역할에 걸맞은 것이었다. 주교는 막대한 존경을 받았으며, 러시아와 일본 양국에서 수많은 추종자들이 있었다. 동양학 관련 논문부터 국가 간 관계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한 문제들에 대해 그의 권위에 의지하곤 했다. 니콜라이 주교의 외교적 자질은 러시아 왕위 계승자 니콜라이 알렉산드로비치에 대한 암살 시도가 있었던 유명한 “오쓰 사건”으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드러났다.

이는 전례 없는 사건이었다. 일본 천황의 초청으로 일본을 방문했고, 천황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았던 러시아 황태자가 경호원 중 한 명인 경찰관에게 습격을 당한 것이다. 일본은 스캔들 같은 외교적 실패에 직면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왕세자를 호위하던 러시아 군함 7척이 일본 해군 전력을 전멸시키는 데 아무런 어려움도 없었기 때문에 국가 안보의 위협까지 맞닥뜨리게 되었다. 러시아인들의 분노는 상처가 사소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천황이 보낸 일본 의사들의 진료를 거부한 사실에서 드러났다. 천황 자신은 서둘러 니콜라이 알렉산드로비치에게 직접 찾아가 그를 항구까지 배웅했고, 심지어 러시아 군함 갑판에까지 올라갔는데, 이는 재위 중인 일본 군주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 이 사태에 러시아 특사 셰비치와 니콜라이 주교가 개입했다. 니콜라이 주교는 특히 열성적으로 나섰으며, 무엇보다도 다른

이들보다 더 열심히 자신의 동명이인인 니콜라이에게 일본과의 전쟁으로까지 번지지 않도록 설득했다. 황태자는 일본 천황의 사과를 받아들였다. 이 사건은 평화롭게 해결되었다.

1910년에는 니콜라이의 일본 주재 50주년을 성대히 기념했다. 성직자 회의는 그를 대주교로 승진 시켰다. 니콜라이에게는 일본 천황과 도쿄 총독, 일본 언론, 외국 공관들이 축하를 보냈다. 도쿄 지사의 연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었다. “...저의 생각에, 존경받는 스승 니콜라이()가 우리 국가에 기여한 공로는 단순히 한 선교사의 성공에 그치지 않고, 그가 우리 나라의 문명 발전에 기여했다는 점에도 있습니다...”

일본에 주재하던 다른 외국인들도 러시아 선교단에 대해 열광적으로 평가했다. 한 영국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성공회 일본 교회와 나란히, 일본 최고의 기독교인인 니콜라이 대주교가 이끄는 훌륭한 러시아 선교단이 자리 잡고 있다...”

주교께서는 자신의 공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농부가 밭을 갈 때 사용한 쟁기가 무슨 공로가 있겠습니까? 쟁기가 ‘자, 정교회 신자들아, 내가 이만큼 해냈어!’라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역할은 쟁기보다 높지 않습니다. 농부가 밭을 갈고 나니 쟁기는 닳아 버렸습니다. 그는 쟁기를 버렸습니다. 나도 닳아 버렸다. 그리고 나도 버려질 것이다. 새로운 쟁기가 밭을 갈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니

잘 보아라, 밭을 갈아라! 정직하게 밭을 갈아라! 지칠 줄 모르고 밭을 갈아라! 하나님의 일이 자라나게 하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바로 너를 통해 밭을 갈게 하셨다는 사실은 기쁜 일이다. 그것은 네가 녹슬지 않았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밭에서 일하며 네 영혼도 어느 정도 정화되었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드리자.”

니콜라이 야포스키의 말씀과 가르침

1887년 7월 일본 교회 총회에서 성 니콜라이 야포스키의 말씀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내 아들이야! 네가 주 하나님을 섬기려 한다면, 유혹에 대비하여 네 영혼을 준비하라. 네 마음을 다스리고 굳건히 서며, 시련이 닥칠 때 당황하지 말라. 그분께 굳게 매달리고 물러서지 말라. 그리하면 마지막에 네가 높임을 받을 것이다. 네게 닥치는 모든 일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네가 당하는 굴욕의 시련 속에서도 오래 참으라” (시라 2:1-3).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물론 하나님

을 섬기는 일에 나섰으며, 따라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곧 스스로를 수고에 내모는 것임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이 섬김 속에 큰 기쁨이 담겨 있음을 알고 있다. 왜냐하면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위해 일하는 자들을 보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도우시며, 자비로우신 분으로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길은 위험과 걸림돌, 연약함과 넘어짐으로 가득 차 있으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주 하나님께 섬기기를 원한다면 유혹에 대비하여 영혼을 준비하라고 가르친다.

유혹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로부터 오는 시련이고, 두 번째는 아래로부터 오는 유혹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유혹에 대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금과 은이 불로 단련되듯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단련하시느니라”*(잠언 17:3). 금은 순수한 것도 있고, 불순물이 섞인 것도 있으며, 가짜도 있다. 불로 시험을 받을 때 순수한 금은 아무런 손해도 입지 않고, 오히려 더욱 아름다워진다. 불순물이 섞인 금에서는 순수한 부분이 분리되고, 가짜 금은 결국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으로 변해 버린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미덕도 진정한 것일 수 있고, 자만과 교만 또는 다른 정욕과 섞여 있을 수도 있으며,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에게서 보였던 것처럼 아예 가짜이고 허위일 수도 있다. 이처럼 위에서 오는 유혹은 사람의 미덕의 질을 결정한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사람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유혹을 보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덕이 어떤지 알기 위함이 아니라, 사람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즉, 사람이 그 미덕 속에 거짓과 위선이 섞여 있음을 깨닫고 회개하여 선으로 돌아서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도 위로부터 오는 이러한 유혹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외에도 또 다른 종류의 유혹이 있는데, 바로 마귀에게서 오는 유혹입니다. 마귀는 사람의 생각에 어둠을 심고, 그 마음에 온갖 종류의 불결함을 주입하며, 그를 혼란에 빠뜨려,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영혼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목적으로 사람을 악한 행위로 이끍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이러한 유혹과 미혹의 한가운데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맑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8-9). 모든 교리 교사들과 사제들은 마귀의 예리한 주시 아래에 있으며, 마귀는 그들을 이기려고 수많은 불화살을 쏘아댁니다. 이 화살들 중에서 가장 해로운 것은 자만과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교리 교사들이 아주 젊은 나이에 설교에 나서는데, 사람들은 이미 그들을 선생과 지도자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이를 이용해 그들에게 교만을 쉽게 심어주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얼마나 많은 교회 사역자들이 이 화살에 쓰러졌는지 모릅니다! 매년 저는 많은 교리 교사를 배출하지만, 그중 상당수가 넘어집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모든 것은 자만과 교만 때문입니다. 만약 어떤 그리스도인이 그들을 훈계하려고

하면, 그들은 오히려 이에 분노합니다. 마귀에게는 그 외에도 수많은 불화살이 있어, 그에게 대항할 수 없는 자들을 쓰러뜨립니다. 교리 교사 명단에서 제외된 이들은 예외 없이 모두 그러합니다. 형제 여러분, 주님을 섬기려 나섰으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넘어진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유혹에 대비하여 스스로를 단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힘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스스로를 단련하지 않는다면, 언제나 유혹에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마귀는 자신의 화살로 쏘아서 죽일 것입니다. 지금, 공의회가 시작되기 전에, 저는 과거를 회상하고 미래를 내다보며, 이 모든 것을 여러분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사항으로 말씀드려야 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우리가 유혹에 대비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분명히 알려 주고 있습니다.

첫째, “네 마음을 준비하라”(시라 2:2), 즉 네 마음을 지키고, 네 행실을 바로잡으며, 미덕을 쌓아, 그로써 유혹에 빠지는 것을 피하라. 마치 배가 잘 관리되고 조종된다면 폭풍이나 거센 파도도 두렵지 않겠지만,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난파될 위험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치 말을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달아날 수 있고, 결국 뒤집히거나 구덩이에 빠질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지 않는다면, 그 마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오직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와 온갖 악한 계락을 우리 생각에 심어 놓고, 우리의 마음과 행실을 혼란에 빠뜨릴 뿐이다.

둘째, “*오래 참으라*.” 사람은 본래 악에 쉽게 기울어지므로,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기꺼이 온갖 수고와 슬픔을 견디고, 자신을 절제하며 마음을 진리로 이끌어야 한다. 만약 우리가 고난과 슬픔을 견디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극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과 슬픔 없이는 누가 원수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셋째, “*하나님께 굳게 매달리고 그분에게서 떠나지 말라*”(시라 2:3). 하나님께 굳게 매달리면, 우리는 어떤 유혹 속에서도 안전할 것이니, 마치 항구에 도착한 배가 더 이상 폭풍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과 같다.

형제 여러분, 총회가 시작되기 전에 이 말씀을 전하고 싶었으며,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마카리우스(네브스키) 대주교님께 보낸 편지에서¹

지난 해 11월 4일자 귀하의 소중한 편지를 12월 30일에 받았습니다. 비록 슬픈 소식이지만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외 전쟁에서의 연이은 패배, 끊임없는 내부의 소요와 유혈 사태—아마도 하나님께서 러시아를 버리신 것 같거나,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가련한 조국을 징벌하는 데 지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물론, 우리는 이것이 불의에 빠진 자녀를 바로잡으시는 자애로운 아버지의 징벌하는 오른손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이 믿음은 러시아 위에 여전히 많은 번개와 천둥을 품고 있는 듯한 먹구름이 드리워진 이 어두운 날들 속에서 우리에게 유일한 위안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러분을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라고 쓰셨습니다. 네, 여기에는 혁명이 없고 평온합니다. 하지만 마음의 불안은 여러분보다 더 클지도 모릅니다. 그 생각들이 누구와도 나누거나 털어놓을 사람이 없어 더욱 괴롭기 때문입니다.

이곳 교회 상황은,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모든 것이 순조롭습니다. 전쟁 당시보다 설교가 훨씬 활기차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전쟁 포로들을 돌보던 사제들이 다시 자신의 신도들 곁으로 돌아왔기 때

¹ 성 마카리(네프스키), 모스크바 및 콜로멘스크 대주교(1835-1926). 모스크바 및 콜로멘스크 대주교(1912-1917), 알타이 대주교(1920년부터), 뛰어난 선교사이자 알타이 민족의 계몽가.

문입니다. 게다가 전쟁의 화약 연기와 함께 러시아에서 전해지는 정교회에 대한 편견, 즉 정교회가 일본을 정복하려는 음모에 불과하다는 등의 주장들도 사라졌습니다. 몇몇 젊은 교리 교사들이 전쟁에 징집되었으나, 귀환하자마자 즉시 다시 교회 봉사에 나서기를 청했고, 열성적으로 그 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교리 교육 수강생들은 곳곳에 있으며, 사제들로부터 세례식이 거행되었다는 소식이 자주 전해집니다. 올해 우리 대주교회의는 특히 규모가 클 것이며, 하느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지금도 교회를 다시 활기치게 만들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곳의 모든 것이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다만 저에게는 조력자가 없습니다. 저는 이미 늙었습니다. – 한 발은 무덤에 들여놓은 셈이죠. – 70세인데, 홀로 살아서 교회를 맡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제 늘 느끼는 슬픔입니다. 하지만 여기 한 가지 위안이 있습니다. 교회 일은 우리 자신의 일이 아니라 모두의 일이며, 우리는 종일 뿐입니다.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처분하시게 하소서!

이곳과 현지의 교회 선교를 위해 대목자의 축복과 성스러운 기도를 간청하며, 이곳 선교와 교회에 대한 주교님의 선한[창조?]이곳 선교부와 교회에 대한 자비로운 배려에 대해 진심 어린 영적 헌신과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존경하는 주교님의 가장 겸손한 순종자이자 기도하는 자로서, 일본 주재 러시아 영적 선교부 책임자

니콜라이, 레벨 주교

도쿄, 1906년 4월 14일

*** **

지극히 존경하는 주교님, 자비로우신 대목자이자 아버지!

이미 오래전에 귀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편지와 두 권의 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에 대해 귀하의 지극히 존경받는 성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책들은 모두 읽은 후 제본하여 선교부 도서관 목록에 등재하였으며, 기증자님을 영원히 기억하고 독자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입니다. 편지에 답장드리며, 무엇보다도 제가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오랜 사역과 대주교 직분에 대한 형제적인 축하의 말씀에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제 후임자로는 이미 이곳에서 사역했으나 신경 쇠약으로 병에 걸려 떠났던 아르히만드리트 안드로니크 [니콜스키]²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는 우피마 신학교의 학장이며, 병도 완전히 회복된 것으로 보입니다. 성스러운 시노드에서 그를 부주교 직위로 이곳에 파견할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이를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안드로닉 대수도사는 훌륭한 선교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정신적 자질을 충분히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귀하께서 일본인들을 사랑해 주시고 그들에 대해

² 안드로닉(니콜스키)(1870-1918), 페름 및 쿤구르 대주교, 성순교자.

그토록 좋은 평가를 해 주시는 것을 저는 언제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본으로 가서 선교사로 봉사하러 가겠다!”는 귀하의 따뜻한 말씀에 저는 얼마나 용기를 얻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저에게는 그 말 한 마디만으로도 제 삶을 완전히 헛되다고 여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편지의 후반부는 유쾌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 편지가 쓰인 이후로 희망의 빛은 보이지 않고, 우리의 불쌍한 조국 위에 어둠이 점점 더 짙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문은 살인, 강도, 파업, 학생 청년들의 무위도식, 신학생들의 난동 등등에 대한 기사를 읽을 때면 항상 손에서 떨어집니다. 총회는 아마도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될 때까지 연기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결정이라도 왜곡되어 해석될 것이고, 추진된 개선책들도 과장되거나 폄하될 테니까요.

이곳 선교부와 교회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모든 것이 순조롭고 제 궤도를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예배문 번역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현재 옥토이히아의 제4음조가 진행 중이며, 슬라브어 본문에 있는 모든 내용을 통째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 예배문을 러시아어로 번역하거나, 적어도 슬라브어 본문을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정리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실감하게 됩니다. 때로는 한 구절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30분 이상을 허비하기도 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그 순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대로 자신의 상상력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대체해 버리

기도 한다. 공의회의 시급한 과제 중 하나는 예배 문구를 수정할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다만, 일을 백 년이나 질질 끌게 될 장기화된 위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책에 대해 귀하께 빛을 지고 싶지 않아, 귀하께서 보내주신 두 권에 답례로 이곳에서 두 권을 귀하의 대주교님께 보내드립니다. 이곳 교회들의 교화를 위해 출판된 우리 공의회에 대한 삽화가 곁들여진 설명서와 일본어로 된 시편입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가진 것이 많지 않아 이 정도밖에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자신과 이곳의 모든 교회를 위해 주교님의 대목자적 축복과 거룩한 기도를 간청하며, 진심 어린 존경과 가장 진실한 마음의 헌신, 그리고 형제적 사랑으로 주교님의 가장 겸손한 제자이자 신자이자 일본 주재 러시아 선교단 단장인

니콜라이, 레벨 주교
도쿄, 1906년 9월 18일

결론

정교회의 빛으로 일본을 계몽한 주된 공로는 뛰어난 러시아 선교사이자 ‘일본의 사도’인 니콜라이 대주교에게 돌아갑니다. 그는 19세기 중반, ‘떠오르는 태양의 나라’에서 복음 전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성 니콜라이 일본 대주교는 이후 반세기에 걸친 지칠 줄 모르는 활동을 펼치게 될 사람들의 언어와 삶을 연구하는 데 힘과 시간을 아끼지 않았으며, 그 결과도 놀라웠습니다. 고독한 선교사이자 수행자였던 그는 수십 명의 일본인 목회자와 수만 명의 신도를 거느린 교회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일본 자치 교회는 다종교적 전통, 지식인의 과학 중심적 기조, 그리고 신종교적 종파와 단체들의 공격성이 공존하는 포스트산업화 일본이라는 복잡한 세상 속에서 존재하고 있다.

이 나라의 기독교 전도 역사에서 성 니콜라이 사도등가 대주교보다 이 칭호를 더 당당히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 니콜라이 사도급 주교님, 우리를 위하여 하느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 소식지 A33

편집자: 알렉산드르(밀레안트) 주교